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6, No.2, 247-261, 2000.

주요개념 : 간호학교수, 임상연수

# 간호학교수 임상연수프로그램 효과 분석

서문자[1] · 도복늠[2] · 박춘자[3] · 김성실[4] · 전시자[5]
이선옥[6] · 임난영[7] · 박영임[8] · 정은순[9]
김순례[10] · 최스미[11] · 조남옥[12]

## Ⅰ. 서 론

### 1. 필요성 및 목적

간호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학습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있는 간호전문인을 길러야 하는 것이 간호 교육계의 책임이기 때문이다(서문자, 1998).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의료계의 급진적 변화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여 간호실무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형태의 변화와 핵가족화로 가정간호 및 장기적 간호(long-term care)라는 새로운 형태의 간호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간호 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문제에 대처하는 상호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간호교육은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 교육내용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서울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새로운 학부교과과정의 틀을 연구하여(홍경자 등, 1998) 시행단계에 있다.

간호교육은 강의실에서가 아니고 임상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므로(Moccia, 1990), 임상실무능력의 향상이 특히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교수들의 임상실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간호학 교수들은 강의시 실무와 이론의 연계를 위해 실무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김문실, 1995).

이러한 간호학 교수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간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교수
4)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5) 적십자 간호대학 교수
6) 한국방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7)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8)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9)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0)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2)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호교육학회는 1996년 12월부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동, 하계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중앙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과 공동으로 간호학 교수를 위한 임상연수프로그램을 1999년 동계임상연수까지 총 7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7차에 걸쳐 실시된 간호학 교수임상연수에 참여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임상연수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 발전된 임상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연수에 참여한 목적과 만족도를 조사한다.

둘째, 임상연수의 효과와 활용도를 조사한다.

셋째, 연수기관과 간호단위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다.

넷째, 임상연수에 불만족한 이유와 희망사항을 조사한다.

다섯째, 임상연수기관 선정시 고려사항을 조사한다.

여섯째, 새롭게 개설되길 원하는 과정과 교수 임상연수의 개선방향을 조사한다.

## II. 문헌 고찰

Knox 와 Mogan(1987)은 좋은 간호학 교수의 요건으로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되고 간호를 즐기며 임상기술과 판단력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Reeve(1994)도 임상실습 교수의 기본 속성으로 전문적 태도, 역할모델로 작용하는 능력,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동시에 원조자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좋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술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적절한 실무교육 경험이 있어야한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아 과거의 간호교육은 대학의 아카데미즘으로 발전했다기 보다는 임상실무에서 선배간호사에게 도제식 실습교육을 받아왔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간호교육 기관에서 간호학 교수는 강의실에서 이론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임상지도자들은 실무현장에서 직접 학생 실습지도를 하는 이원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론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은 실습교육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신경림, 1993) 학생들이 실습교육시 갈등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간호학 교수 자체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임상현장의 기계적, 물리적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계기구사용법이나 새로운 처치법 및 간호법에 익숙하지 못해서 실습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박정숙, 1995).

문제중심 학습(PBL)의 시행경험 비교연구(은희철, 김병국, 김정국 & 백상호, 1998)에서도 생식의학에 관한 비전문가인 피부과 교수와 내과 교수가 생식 의학과 관련된 PBL증례의 학습지도에 참여하였으나 학생들의 평가나 참관 교수의 평가에서 교수의 역할이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공이 다른 점도 일부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학습지도교수로서의 경험과 기술의 축적이 부족한 점이 보다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내 8개 대학종합병원에서 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수간호사 55명과 간호학 교수 30명을 대상으로 간호학 교수의 실무참여에 관해 조사한 연구에(김문실, 1995) 의하면, 30명의 간호학 교수 전원이 실무경험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60%가 '강의시 학생의 학습촉진'이었고 33%는 '실무와 이론의 연계'를 그리고 '교수능력 개발'과 '연구촉진'이 각각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학 교수들이 강의를 위해 실무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의 내용을 규정하는 요소는 교육과정과 교수인데 간호교육에 관한 대부

분의 연구는 전체적인 간호교육의 실태나 학생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할 뿐 교수 측면에서 간호학생들의 전문적 학습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수활동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극히 미진한 상태이다(김미애, 1996). 이러한 점은 우리사회에서 교직이나 교수는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지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과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가치관의 일환이라고 보겠다(허경철, 1987).

그러나 Tetreault(1976)는 교수의 전문의식 여부가 학생들의 전문의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교수들이 전문가로서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배움이 증가한다고 하여 교수들의 전문가로서의 계속적인 교육이 교수자신과 학생교육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혜숙(1998)은 1995년에 조사된 병원에 취직하여 교육을 받기 전의 신입간호사 420명을 대상으로 17개 간호영역 201간호행위에 대해 졸업간호사의 임상간호 수행능력을 조사한 결과 침상정리 및 환의 교환과 관련된 간호영역이 평균 3.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단 및 검사와 관련된 간호영역은 2.53점으로 가장 낮았고 17영역 전체 평균은 3.12점으로 졸업간호사의 임상간호 수행능력이 높지않다고 보고하였다. 또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 서울의 3차 의료기관인 J병원 신입간호사 59명을 대상으로 신규교육전·후의 간호지식, 기술 및 태도를 비교한 결과 지식은 교육전 평균 2.79점에서 교육후 3.45점으로, 간호기술정도는 교육전 평균 66.94점에서 교육후 85.16으로, 그리고 간호태도는 교육전 평균 3.67에서 교육후 3.80으로 3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육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3년 또는 4년의 학부교육과정에서 임상간호사로서의 실무수행능력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 될 수 있다. 김혜숙(1998)은 졸업간호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실제적 임상경험이 풍부한 임상실습 지도교수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원희 등(1998)도 임상지도자(preceptor) 활용이 간호학생의 실무수행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보았는데, 간호행위 수행능력은 임상지도자에 의해 지도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며 '좋은 역할 모델'과 '간호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면에서 기존의 수간호사등의 실습지도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원희, 김소선, 한신희, 이소연, 김기연(1995)의 연구에서는 특히 임상지도자들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인지적 역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는데 학생들은 '임상지도자들이 최근의 정보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지도자들의 계속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에게 차기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총 618명의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교수의 교수효율성을 조사한 김미애(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은 전임교수가 44.9%, 전임교수와 수간호사가 18.5%, 기관별 실습조교(강사)가 15.1%, 과목별 실습조교(강사)가 14.6%, 수간호사가 6.2% 순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실습기간 중 1 -2회(59.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학생의 82.5%인 156명이 전임교수가 실습지도를 해야하는 이유로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켜 더 전문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문실의 연구(1995)에서는 교수들의 실습교육참여를 촉진하는 요소와 방해하는 요소도 조사되었는데, 촉진하는 요소로는 실습교육에 대한 교수 개인의 가치(56%)와 학생실습능력의 향상(41%)이 높게 나타났는데 개인의 가치 중에서는 실무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있을 때와 전문지식 및 기술의 습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수의 실습교육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는 이론교육의 중시(20명)나 과중한 강

의로 인한 시간부족(28명)외에도 실무경험부족(23명)과 실무책임에 대한 부담감(15명) 등의 실무능력 부족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실무현장에서 교수자 신의 자신감 증진과 함께 간호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뿐 아니라 교수개인도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가치를 부여해야할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1) 대상자

1998년에 교수임상연수에 참여한 113명과 1999년에 참여한 106명을 합하여 총 219명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지에 응답하여 준 125명의 교수가 대상이다.

2) 조사 도구

① 임상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지 : 교수임상연수를 계획하고 주관한 교육학회 임원진의 3차례에 걸친 토의와 임상연수기관의 연수평가 자료를 토대로 연구팀이 작성하였다. 임상연수의 효과를 묻는 10영역 47문항과 '새롭게 개설되길 원하는 과정'과 '교수임상연수의 개선방향'을 묻는 2개의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임상연수의 효과에 대한 문항은 연수 참여 목적의 5문항, 임상연수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5문항, 연수과정 만족도 6문항, 임상연수 후 효과 3문항, 연수결과의 활용 6문항, 임상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5문항, 간호단위의 간호사와 간호실무에 대한 평가 5문항, 연수과정에 대한 불만족도 7문항과 교수임상연수의 운영과 희망사항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별로 '전혀 아니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만족도와 효과 또는 불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② 일반적 특성 조사지 : 임상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들의 지역, 재직학교의 학제, 경력, 직급, 전공을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1999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5개월간 1998년 동·하계와 1999년 하계임상연수에 참여한 교수 중 하계연수회에서 설문지에 응답해 준 18명을 제외한 162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어 이 중 62.3%인 101부가 회수되었다. 또한 일부 1999년 하계와 동계임상연수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연수 마지막날에 있는 임상연수평가회 시간에 직접 조사지를 작성한 24명을 포함하여 총 125명이 연구 대상자이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임상연수에 참여한 목적, 효과 및 만족도 등을 빈도 및 퍼센트를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연수 만족도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Ⅳ.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수경험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령은 27세에서 55세까지였으며 평균 40.5세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전체의 49.2%(6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로 33.6%(41명)이었으며 30세 이하와 51세 이상은 각각 9.0%(11명)과 8.2%(10명)으로 나타났다.

임상연수에 참여한 교수들의 근무지역은 전남 16.8%(21명), 경기 15.2%(19명), 경북 11.2%(14명), 대구와 서울이 각각 7.2%(9명) 순으로 높았으나 강원, 제주까지 전 지역에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학교는 76%(95명)가 3년제 교육과정에 그리고 24% (30명)는 4년제 교육과정에 재직 중이었다.

대상 교수들의 경력은 병원경력은 0.2년에서 25년까지였으며 평균 5.3년이었다. 5년단위로

살펴보면 5년 이하가 71.4%(85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였으며 6-10년이 16.8%(20명)이고 10.1%(14명)는 11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경력은 1년부터 28년까지였으며 평균10.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5년 단위로 살펴보면 5년 이하인 경우가 40.5%로 가장 높았고 11-15년이 20.7%(24명), 16-20년이 17.3%(20명), 6-10년이 12.9% (15명) 순이었으며 21년 이상인 경우도 8.6% (10명)으로 나타나 5년 이상의 학교경력을 가진 교수들의 참여가 전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전임강사가 28.8%(36명), 조교수가 23.2%(29명) 순으로 많았으나 교수와 부교수도 각각 19.2%(24명), 17.6%(22명)이었으며 조교와 시간강사도 11.2%(14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전공은 성인이 32.8%(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모아가 26.4%(33명)이었으며 지역과 정신이 각각 5.6%(7명), 4.0%(5명)으로 적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연수경험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사 시점에서 임상연수에 참여한 것이 처음인 경우가 전체의 59.3%(7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번인 경우도 32.2%(38명)이고 3번인 경우도 8.5%(8명)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기관은 서울중앙병원과 삼성의료원이 전체의 48.2%(51명)와 39.6%(42명)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세브란스병원 9.4%(10명)과 서울대병원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수과정은 종양과정, 신경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재활 및 중환자과정을 포함한 성인간호학 영역이 전체의 5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아동·모성과정이 24.5%(24명), 행정·관리과정이 17.3%(17명)순이었으며 기본간호과정과 정신간호과정도 5.1%와 2%를 차지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25

| 변 수 | 항 목 | N | % |
|---|---|---|---|
| 연 령 | 27 - 30 | 11 | 9.0 |
| | 31 - 40 | 41 | 33.6 |
| | 41 - 50 | 60 | 49.2 |
| | 51 - 55 | 10 | 8.2 |
| 지 역 | 서울 | 9 | 7.2 |
| | 경기 | 19 | 15.2 |
| | 인천 | 1 | .8 |
| | 강원 | 7 | 5.6 |
| | 대전 | 4 | 3.2 |
| | 충남 | 7 | 5.6 |
| | 충북 | 3 | 2.4 |
| | 울산 | 3 | 2.4 |
| | 부산 | 8 | 6.4 |
| | 대구 | 9 | 7.2 |
| | 경북 | 14 | 11.2 |
| | 경남 | 7 | 5.6 |
| | 광주 | 8 | 6.4 |
| | 전남 | 21 | 16.8 |
| | 전북 | 4 | 3.2 |
| | 제주 | 1 | .8 |
| 재직학교 | 3년제 | 95 | 76.0 |
| | 4년제 | 30 | 24.0 |
| 병원경력 | 5년 이하 | 85 | 71.4 |
| | 6 - 10년 | 20 | 16.8 |
| | 11년 이상 | 14 | 10.1 |
| 학교경력 | 5년 이하 | 47 | 40.5 |
| | 6 - 10년 | 15 | 12.9 |
| | 11 - 15년 | 24 | 20.7 |
| | 16 - 20년 | 20 | 17.3 |
| | 21년 이상 | 10 | 8.6 |
| 직 급 | 교수 | 24 | 19.2 |
| | 부교수 | 22 | 17.6 |
| | 조교수 | 29 | 23.2 |
| | 전임강사 | 36 | 28.8 |
| | 조교, 시간강사 | 14 | 11.2 |
| 전 공 | 성인 | 41 | 32.8 |
| | 모아 | 33 | 26.4 |
| | 정신 | 5 | 4.0 |
| | 기본 | 17 | 13.6 |
| | 관리(행정) | 15 | 12.0 |
| | 지역 | 7 | 5.6 |
| | 기타 | 7 | 5.6 |

(무응답 제외)

<표 2> 연수경험

| 변 수(N) | 항 목 | N | % |
|---|---|---|---|
| 참여횟수(116) | 1번 | 70 | 59.3 |
| | 2번 | 38 | 32.2 |
| | 3번 | 8 | 8.5 |
| 연수기관(106) | 삼성의료원 | 42 | 39.6 |
| | 서울대병원 | 3 | 2.8 |
| | 서울중앙병원 | 51 | 48.2 |
| | 세브란스 | 10 | 9.4 |
| 연수과정(98) | 아동·모성 | 24 | 24.5 |
| | 기본 | 5 | 5.1 |
| | 행정·관리 | 17 | 17.3 |
| | 정신 | 2 | 2.0 |
| | 종양 | 10 | 10.2 |
| | 신경계 | 13 | 13.3 |
| | 소화기 | 1 | 1.0 |
| | 호흡기계 | 9 | 9.2 |
| | 재활 | 6 | 6.1 |
| | 중환자 | 4 | 4.1 |
| | 순환기 | 7 | 7.1 |

(무응답 제외)

## 2. 임상연수의 효과

1) 임상연수에 참여한 목적과 만족도

임상연수 참여 목적에 대해 대상자들은 '이론과 실무의 보다 단단한 연결을 위해서'가 평균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관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가 평균 3.57로 나타났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3.4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상황에서 간호실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와 '실무능력의 훈련과 향상을 위해서'도 모두 평균 3.0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표 3참조>.

연수 참여 교수들의 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첨단 시설을 볼 수 있었다' 와 '발전한 간호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 각각 평균 3.45와 3.38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론으로만 알던 내용을 실습할 기회가 있었다'는 평균 2.13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관찰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연수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들의 연령, 재직학교, 학교경력 및 병원경력별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별로는 '첨단의 시설을 볼 수 있었다'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을 실습할 기회가 있었다'에서 41세 이상군의 만족도 평균이 높았으며 다른 4문항에서는 40세 이하군에서 만족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전한 간호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41세 이상군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년제와 4년제에 따른 차이는 6문항 모두에서 3년제에 근무하는 대상자군에서 높은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상자의 병원경력에 따른 차이는 '첨단의 시설을 볼 수 있었다', '첨단의 치료법을 볼 수 있었다' 와 '새로운 지식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5년 이하군에서 평균점이 더 높았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을 실습할 기회가 있었다' 와 '발전한 간호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6년이상군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지식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5년 이하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교경력과 관련해서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을 실습할 기회가 있었다' 문항을 제외한 5문항 모두에서 6년 이상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임상연수의 효과와 활용도

임상연수의 효과에 대해 '이론으로만 알던 것보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와 '새로운 이론과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가 평균 3.23과 3.15로 높게 나타났으나 '새로운 간호실무 또는 중재법을 배울 수 있었다' 와 '환자 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가 각각 2.80과 2.56으로 낮게 나타나 임상연수가 새로

<표 3> 임상연수에 참여한 목적과 만족도 N(%)

| | 문 항(N)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평균± 표준편차 |
|---|---|---|---|---|---|---|
| 목적 |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123) | 60(48.8) | 59(48.0) | 4(3.3) | | 3.46±.56 |
| | 새로운 치료방법을 관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122) | 76(62.3) | 39(32.0) | 7(5.7). | | 3.57±.60 |
| | 실제상황에서 간호실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위해서(124) | 48(38.7) | 50(40.3) | 22(17.7) | 4(3.2) | 3.15±.82 |
| | 이론(지식)과 실무의 보다 단단한 연결을 위해서(122) | 78(63.9) | 43(35.2) | 1(.8) | | 3.63±.50 |
| | 실무능력의 훈련과 향상을 위해서(122) | 33(27.0) | 69(56.6) | 16(13.1) | 4(3.3) | 3.07±.73 |
| 만족도 | 첨단의 시설을 볼 수 있었다(124) | 64(51.6) | 52(41.9) | 8(6.5) | | 3.45±.62 |
| | 첨단의 치료법을 볼 수 있었다(124) | 47(37.9) | 57(46.0) | 20(16.1) | | 3.22±.70 |
| | 새로운 지식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123) | 44(35.8) | 68(55.3) | 11(8.9) | | 3.27±.62 |
| | 이론으로만 알던 내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125) | 47(37.6) | 67(53.6) | 11(8.8) | | 3.29±.62 |
| | 이론으로만 알던 내용을 실습할 기회가 있었다(123) | 4(3.3) | 25(20.3) | 77(62.6) | 17(13.8) | 2.13±.68 |
| | 발전한 간호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122) | 52(42.6) | 64(52.5) | 6(4.9) | | 3.38±.58 |

(무응답 제외)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 만족도문항 | 변 수 | | N | 평균±표준편차 | t | Sig. |
|---|---|---|---|---|---|---|
| 첨단 시설 견학 | 연령 | 40세 이하 | 52 | 3.48±.58 | .282 | .779 |
| | | 41세 이상 | 69 | 3.45±.63 | | |
| | 학제 | 3년제 | 94 | 3.50±.64 | 1.557 | .122 |
| | | 4년제 | 30 | 3.30±.54 | | |
| | 학교경력 | 5년 이하 | 85 | 3.48±.61 | .707 | .481 |
| | | 6년 이상 | 33 | 3.39±.61 | | |
| | 병원경력 | 5년 이하 | 46 | 3.46±.59 | -.317 | .752 |
| | | 6년 이상 | 69 | 3.49±.61 | | |
| 첨단 치료법 관찰 | 연령 | 40세 이하 | 52 | 3.17±.73 | -.680 | .498 |
| | | 41세 이상 | 69 | 3.26±.68 | | |
| | 학제 | 3년제 | 94 | 3.28±.72 | 1.657 | .100 |
| | | 4년제 | 30 | 3.03±.61 | | |
| | 학교경력 | 5년 이하 | 85 | 3.31±.69 | 1.325 | .188 |
| | | 6년 이상 | 33 | 3.12±.65 | | |
| | 병원경력 | 5년 이하 | 46 | 3.11±.67 | -1.957 | .053 |
| | | 6년 이상 | 69 | 3.36±.69 | | |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 만족도문항 | 변 수 | | N | 평균±표준편차 | t | Sig. |
|---|---|---|---|---|---|---|
| 새로운 지식·기술 획득 | 연령 | 40세 이하 | 51 | 3.24±.68 | -.614 | .540 |
| | | 41세 이상 | 69 | 3.30±.55 | | |
| | 학제 | 3년제 | 93 | 3.29±.62 | .698 | .487 |
| | | 4년제 | 30 | 3.20±.61 | | |
| | 학교경력 | 5년 이하 | 84 | 3.36±.59 | 2.197 | .030 |
| | | 5년 이상 | 33 | 3.09±.58 | | |
| | 병원경력 | 5년 이하 | 46 | 3.22±.63 | -1.448 | .150 |
| | | 5년 이상 | 68 | 3.38±.57 | | |
| 이론으로만 알던 내용 관찰 | 연령 | 40세 이하 | 52 | 3.27±.56 | -.269 | .789 |
| | | 41세 이상 | 70 | 3.30±.67 | | |
| | 학제 | 3년제 | 95 | 3.31±.62 | .553 | .582 |
| | | 4년제 | 30 | 3.23±.63 | | |
| | 병원경력 | 5년 이하 | 85 | 3.29±.61 | .000 | 1.000 |
| | | 6년 이상 | 34 | 3.29±.63 | | |
| | 학교경력 | 5년 이하 | 47 | 3.28±.65 | -.231 | .818 |
| | | 6년 이상 | 69 | 3.30±.63 | | |
| 이론으로만 알던 내용 실습 | 연령 | 40세 이하 | 51 | 2.18±.74 | .591 | .555 |
| | | 41세 이상 | 69 | 2.10±.65 | | |
| | 학제 | 3년제 | 94 | 2.15±.70 | .555 | .580 |
| | | 4년제 | 29 | 2.07±.59 | | |
| | 병원경력 | 5년 이하 | 85 | 2.98±.71 | -1.221 | .225 |
| | | 5년 이상 | 32 | 2.25±.51 | | |
| | 학교경력 | 5년 이하 | 45 | 2.18±.78 | -.797 | .427 |
| | | 5년 이상 | 69 | 2.07±.63 | | |
| 발전한 간호 현장 확인 | 연령 | 40세 이하 | 51 | 3.24±.59 | -2.363 | .020 |
| | | 41세 이상 | 68 | 3.49±.56 | | |
| | 학제 | 3년제 | 94 | 3.38±.59 | .206 | .837 |
| | | 4년제 | 28 | 3.36±.56 | | |
| | 병원경력 | 5년 이하 | 84 | 3.36±.61 | -.147 | .883 |
| | | 5년 이상 | 32 | 3.38±.49 | | |
| | 학교경력 | 5년 이하 | 46 | 3.28±.62 | -1.476 | .143 |
| | | 5년 이상 | 67 | 3.45±.56 | | |

운 지식과 정보수집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

임상연수를 받은 후 연수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물은 문항에 대해 '강의에 반영한다'가 평균 3.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실습지도에 반영한다'가 평균 3.37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활동에 반영한다'는 2.96으로 강의나 실습지도에 반영한다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5참조>.

3) 연수기관과 간호단위에 대한 평가

연수기관과 간호단위에 대한 평가에서 10문항 중 한 문항을 제외한 9문항이 모두 평균 3점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연수기관에 대하여 대상자들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부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간호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평균 3.5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간호사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다' 와 '간호부의 조직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가 각각 평균 3.42와 3.40으로 높았으며 '의사들과의 협동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도 3.16으로

<표 5> 임상연수의 효과와 활용도 N(%)

| | 문 항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평균± 표준편차 |
|---|---|---|---|---|---|---|
| 효과 | 환자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120) | 4(3.3) | 63(52.5) | 49(40.8) | 4(3.3) | 2.56±.62 |
| | 이론으로만 알던 것보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123) | 33(26.8) | 85(69.1) | 5(4.1) | | 3.23±.51 |
| | 새로운 이론과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123) | 38(30.9) | 67(54.5) | 16(13.0) | 2(1.6) | 3.15±.70 |
| | 새로운 간호실무 또는 중재법을 배울 수 있었다(122) | 16(13.1) | 70(57.4) | 32(26.2) | 4(3.3) | 2.80±.70 |
| | 간호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122) | 19(15.6) | 55(45.1) | 43(35.2) | 5(4.1) | 2.72±.77 |
| | 간호실무에 대한 관심을 갖는 동기부여가 제공되었다(120) | 22(18.3) | 71(59.2) | 22(18.3) | 5(4.2) | 2.92±.73 |
| 활용 | 강의에 반영(115) | 56(48.7) | 56(48.7) | 3( 2.6) | | 3.46±.55 |
| | 실습지도에 반영(116) | 52(44.8) | 55(47.4) | 9( 7.8) | | 3.37±.63 |
| | 연구활동에 반영(114) | 22(19.3) | 68(59.6) | 22(19.3) | 2(1.8) | 2.96±.68 |

(무응답 제외)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단위에 대한 평가에서 대상자들은 'team nursing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와 '수간호사를 위시하여 간호사들의 교육적 자세(mind)가 확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를 평균 3.45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환자 중심의 친절한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실무의 변화 속도가 빠름을 실감할 수 있다'와 '각 분야의 간호사들이 모두 자부심을 갖고 발전된 수준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도 3.42, 3.37과 3.33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4) 불만족 이유와 앞으로의 희망사항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상연수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찰기회는 많았으나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기회가 적었다'가 3.12로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임상연수에서는 새로운 기술 혹은 기구에 대한 관찰과 정보를 얻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환자에서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연수와 관련한 희망사항은 '연수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유인물)를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와 '관찰과 함께 직접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각각 3.42와 3.30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임상연수기관 선정시 고려사항과 향후 계획

응답자들은 임상연수기관 선정시 '프로그램 내용'이 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실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2.73으로 두 번째 고려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참조>.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도 '다시 연수를 받을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7.5%(118명)가 '있다'고 하였으며 단지 2.5%인 3명만이 '없다'고 하였다.

6) 개설 희망 과정과 개선방향

개설 희망 과정관련 개방형 질문에 대해 연수내용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실무과정(12명), 현재 개설된 과정의 심화과정(7명), 임상·해부병리를 포함한 진단적 검사과정(5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개설되길 원하는 과정은 해외연수(3명), 아동간호학 과정(3명), 기본간호과정(3

<표 6> 연수기관과 간호단위에 대한 평가 N(%)

| | 문 항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평균± 표준편차 |
|---|---|---|---|---|---|---|
| 연수기관 | 간호부의 파워가 신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24) | 41(33.1) | 74(59.7) | 9(7.3) | | 3.26±.58 |
| | 간호부의 조직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124) | 51(41.1) | 72(58.1) | 1(.8) | | 3.40±.51 |
| | 간호부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간호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한다(123) | 70(56.9) | 52(42.3) | 1(.8) | | 3.56±.51 |
| | 의사들과의 협동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 (118) | 25((21.1) | 87(73.7) | 6(5.1) | | 3.16±.49 |
| | 간호사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다(121) | 53(43.8) | 66(54.5) | 2(1.7) | | 3.42±.53 |
| 간호단위 | 환자중심의 친절한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121) | 53(43.8) | 66(54.5) | 2(1.7) | | 3.42±.53 |
| | 수간호사를 위시하여 간호사들의 교육적 mind가 확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3) | 58(47.2) | 62(50.4) | 3(2.4) | | 3.45±.55 |
| | 각 분야의 간호사들이 모두 자부심을 갖고 발전된 수준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22) | 46(37.7) | 70(57.4) | 6(4.9) | | 3.33±.57 |
| | 임상실무의 변화속도가 빠름을 실감할 수 있다(122) | 50(41.0) | 67(54.9) | 5(4.1) | | 3.37±.56 |
| | team nursing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 (122) | 28(23.0) | 63(51.6) | 29(23.8) | 2(1.6) | .96±.73 |

(무응답 제외)

<표 7> 불만족 이유와 희망사항 N(%)

| | 문 항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평균± 표준편차 |
|---|---|---|---|---|---|---|
| 불만족 이유 |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였다(116) | 8(6.9) | 26(22.4) | 66(56.9) | 16(13.8) | 2.22±.77 |
| | 충분한 볼거리가 없었다(116) | 2(1.7) | 21(18.1) | 72(62.1) | 21(18.1) | 2.03±.66 |
| | 관찰기회는 많았으나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기회가 적었다(115) | 31(27.0) | 70(60.9) | 11(9.6) | 3(2.6) | 3.12±.68 |
| | 일정이 너무 힘들었다(118) | 4(3.4) | 38(32.2) | 68(57.6) | 8(6.8) | 2.32±.65 |
| | 기관의 성의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117) | 1(.9) | 11(9.4) | 73(62.4) | 32(27.4) | 1.84±.62 |
| | 연수기관이 서울에만 있어서 지리적 요인으로 이용하기 어렵다(114) | 17(14.9) | 40(35.1) | 43(37.7) | 14(12.3) | 2.53±.89 |
| | 전체 일정 속에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116) | 12(10.3) | 44(37.9) | 52(44.8) | 8(6.9) | 2.52±.77 |
| 희망사항 | 연수기관에서 사용하는 실습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118) | 24(20.3) | 77(65.3) | 16(13.6) | 1(.8) | 3.05±.61 |
| | 연수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유인물)를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121) | 56(46.3) | 60(49.6) | 5(4.1) | | 3.42±.57 |
| | 관찰과 함께 직접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120) | 45(37.5) | 66(55.0) | 9(7.5) | | 3.30±.60 |
| | 전체 연수일정에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면 좋겠다(119) | 37(31.1) | 66(55.5) | 16(13.4) | | 3.18±.65 |
| | 서울이외의 지역에서도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다(113) | 32(28.3) | 45(39.8) | 30(26.5) | 6(5.3) | 2.91±.87 |

(무응답 제외)

<표 8> 임상연수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N(%)

| | 문 항(N)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평균± 표준편차 |
|---|---|---|---|---|---|---|
| 선정이유 | 프로그램 내용(123) | 92(74.8) | 29(23.6) | 2(1.6) | | 3.73±.48 |
| | 실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120) | 22(18.3) | 47(39.2) | 48(40.0) | 3(2.5) | 2.73±.79 |
| | 거리와 교통편의성(121) | 10(8.3) | 47(38.8) | 46(38.0) | 18(14.9) | 2.40±.84 |
| | 비용(121) | 11(9.1) | 38(31.4) | 52(43.0) | 20(16.5) | 2.33±.86 |
| | 연수기관의 숙박시설 제공여부(121) | 15(12.4) | 19(15.7) | 53(43.8) | 34(28.1) | 2.12±.96 |

(무응답 제외)

명), 간호관리(3명), 지역사회간호과정(3명) 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감염관리과정, 장기이식과정, 전문간호사과정, 가정간호, long-term care setting 과정, 노인간호과정, 암환자간호과정, 비뇨기계과정, 정형외과 또는 재활간호과정 등에 대한 개설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다.

교수임상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연수기회의 확대, 심화과정 또는 관찰뿐 아니라 실제로 간호활동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지방의 연수참여자들을 위한 배려와 효율적인 연수운영으로 나타났다.

연수기회의 확대에서는 동·하계 방학 중 정해진 날짜에만 하지말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참여하는 병원들도 시기를 달리하며, 과정마다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없애거나 또는 파트를 나누어 연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과정 또는 실제실습기회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찰시간이 더 많아지고, 관찰뿐 아니라 직접 간호활동을 실습해 봄으로써 임상실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수를 희망하였다. 특히 심화과정에서는 해당분야의 해부, 생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무에 대한 관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현행과 같은 견학 1주, 실습 1주의 2주짜리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지방에서 참여한 교수들의 경우 숙박시설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가능하다면 지방에서도 연수할 수 있는 기관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수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간호사는 연수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동별로 교육을 담당해주는 간호사 또는 지도교육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동일 병원의 다른 과정에서 연수하는 참여자들과의 대화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고, 연수일정도 한학기별로 보다는 1년단위로 교육학회에서 제시해주면 계획을 세워 필요한 과정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겠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간호교육학회와 서울소재 4개 종합병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1997년부터 시행한 교수임상연수의 효과와 만족도를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1998년과 1999년 동·하계 임상연수에 참여한 대상으로 1999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하여 모두 125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교수들이 임상연수에 참여한 목적은 '새로운 치료방법을 관찰할 기회를 얻기위해서' 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주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박정숙

(1995)의 연구에서 교수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임상환경에 익숙치 못하고 새로운 기계나 치료법에 익숙치 못해 실습지도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론과 실무의 보다 단단한 연결을 위해서'가 가장 큰 참여목적으로 나타난 것과 연수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론으로만 알던 것보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가 높게 나타난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현실이 교수들은 주로 강의실에서 이론중심의 강의를 담당하는데서 발생한 한계를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되며 임상연수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연수의 만족도와 관련해서 본 연구 결과 참여 교수들은 '첨단의 시설을 볼 수 있었다'와 함께 '발전한 간호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병원이 서울소재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 87.8%(93명)의 연수기관이 삼성의료원과 서울중앙병원인 점을 고려하면 특히 연수기관 평가에서 '간호사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다' 와 간호단위 평가에서 '수간호사를 위시하여 간호사들의 교육적 mind가 확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 높게 나타난 것과 더불어 1990년대 설립된 사립병원이 기존의 관료적 전통이 강한 대학병원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간호사의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 실무의 질적 향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수들은 임상연수에서 배운 것을 높은 수준에서 강의와 실습지도에 많이 반영하였거나 할 것이라고 밝혀 임상연수는 임상과 교육간의 긍정적인 순환과정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수준향상과 간호실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견학이나 관찰에만 그치지 말고 직접 실습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과정' 과 '심화과정'을 원한 점으로 보아 현재의 임상연수에서 '관찰기회는 많았으나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기회가 적었다'에서 가장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 임상연수의 개선방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임상연수는 서울 소재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참여자가 76.8%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수준 높은 병원을 임상연수기관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들이 연령, 경력, 직급, 지역별로 특정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특성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요구가 간호학 교수들의 공통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제, 병원경력과 학교경력에 따라 임상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분석한 결과 연령이 41세 이상인 군이 40세 이하군에 비해 '발전한 간호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에서 그리고 학교경력이 6년 이상인 군이 5년 이하인 군에 비해 '새로운 지식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간호학 교수들에게 일정 간격으로 임상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연수기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교수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학생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Tettrault, 1976; 김혜숙, 1998)과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켜 더 전문적이 되기 위해서는 전임교수가 실습지도를 해주길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김미애, 1996)는 본 연구에서 교수들이 임상연수에 참여하는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교수임상연수는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학회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의지와 함께 교수연수에 대한 학교나 의료기관 행정가의 의식변화와 교수자신의 의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8년과 1999년에 교육학회에 서울소재 4개 종합병원(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중앙병원, 세브란스병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교수임상연수에 참여한 219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팀이 관련문헌과 연수기관 평가지를 토대로 3차례에 걸친 논의과정을 거쳐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교수임상연수에 참여한 목적, 참여후 만족도, 효과, 활용도 및 불만족요인을 파악한 조사연구이다.

1999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우편으로 보낸 설문지에 응답하여준 98명과 임상연수 마지막날 평가회에서 설문지에 응답하여준 27명을 합하여 모두 125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 참여한 대상자는 27세에서 55세까지였으며, 병원경력도 0.2년에서 25년까지이고 학교경력도 1년에서 28년까지의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직급도 조교, 시간강사에서 교수까지였으며 전공도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간호행정, 지역사회간호학, 기본간호학등 간호학 전공자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지역도 서울부터 제주까지 광역단위별로 한 곳도 빠짐없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연수에 참여한 주목적은 '이론과 실무의 보다 단단한 연결을 위해서' 와 '새로운 치료방법을 관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다.

2. 임상연수 참여후 만족도는 '첨단의 시설을 볼 수 있었다' 와 '발전한 간호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에서 높았다.

3. 임상연수의 효과는 '이론으로만 알던 것보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가 가장 높았으며 강의, 실습지도에 활용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4. 연수기관에서 '간호부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간호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와 '간호부의 조직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간호단위에 대해서는 '수간호사를 위시하여 간호사들의 교육적 mind가 확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 '환자중심의 친절한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5. 임상연수에 대한 불만족 요인은 '관찰기회는 많았으나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기회가 적었다'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앞으로의 희망사항과 관련해서는 '연수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와 '관찰과 함께 직접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높게 나타났다.

6. 다시 연수를 받을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7.5%(118명)이었으며 직접 관찰 또는 실습을 할 수 있는 연수와 심화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임상연수에 참여한 교수들은 연령, 경력, 전공, 직급, 지역의 면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임으로써 임상연수가 전체 교수들에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며, 이론과 실무의 연결과 첨단치료방법 및 발전한 간호실무를 관찰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생 강의와 실습시도에 반영되는 의미있는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임상연수는 강의와 관찰에 그침으로써 보다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환자간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기회의 제공과 과정별로 심화과정을 개발하여야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각 전공별로 교수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임상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임상연수 경험이 실제 교수들의 능력에 어떤 양적, 질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김문실 (1995).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간호학 교수의 실무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 5-16.

김미애 (1996). 임상간호 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6(4), 946-962.

김혜숙 (1998). 실무능력의 실제와 개선방향. 한국간호교육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간호교육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개발교육, 25-39.

박정숙 (1995). 한국 4년제 대학 간호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 17-23.

서문자 (1998). 한국간호교육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간호교육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개발교육, 41-49.

신경림 (1993). 임상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32(5), 93-104.

은희철, 김병국, 김정구, 백상호 (1998). 학습자 대상을 달리한 문제에 바탕을 둔 학습(PBL)의 시행 경험 비교. 한국간호교육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간호교육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개발교육, 3-12.

이원희, 김조자, 유혜라, 김기연, 권보은, 김상희 (1998). 임상교육의 임상지도자 활용모델 적용효과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0(2), 281-288.

이원희, 김소선, 한신희, 이소연, 김기연 (1995). 임상실습 교육개선을 위한 일 preceptorship model의 적용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5(3), 581-596.

홍경자, 홍여신, 이은옥, 박정호, 이소우, 서문자, 최명애, 이명선, 이인숙 (1998). 학부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간호학논문집, 12(2), 258-279.

Knox, J., & Mogan, J. (1987). Characteristics of best & worst clinical teachers as perceived by university nursing faculty &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2, 331-337.

Moccia, P. (1990). No Sire, It's revolu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9(7), 307-311.

Reeve, M. M. (199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1), 15-20.

Tetreault, A. I. (1976). Selected factors associated with professional attitud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Research, 25(1), 49-53.

- Abstract -

Key concept : Nursing faculty, Clinical training program

# The Effect of Clinical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Faculty

*Suh, Moon Ja*[1] · *Do, Bok Neum*[2]
*Park, Chun Ja*[3] · *Kim Seung Sil*[4]
*Chun, Si Ja*[5] · *Lee, Sun Ok*[6]
*Im, Nan Young*[7] · *Park, Young Im*[8]
*Jung, Eun Soon*[9] · *Kim, Soon Lae*[10]
*Choi, Smi*[11] · *Cho, Nam Ok*[12]

It is important for nursing faculties to try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in nursing education. Thus it is essential for them to participate in clinical training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and satisfaction of faculty clinical training programs which were managed by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and 4 Hospitals(Samsung Medical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Asan Medical Center, Yeonsei Sebrance Medical Center) in Seoul.

The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July, 1999 to December, 1999 and the 125 subjec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of professor to clinical training course was found that to observe of up-to-date treatment method(3.57±.60) and to connect between knowledge and practice (3.63±.50).

The professors were highly satisfied with 'can see the high-tech institution and facilities(3.45±.62)' and 'can confirm in advanced nursing field and practice (3.38±.58)' in clinical training program. And it was found that nursing professors applied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clinical training program to lecture and clinial practice for students. But they were dissatisfied with 'they had no or not enough time to practice'.

In conclusion, the clinical training program was useful for nursing professor to educate and instruct the students. It is suggested that the more advanced course and practical program have to be developed for nursing faculties.

1)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 College of Nursing, The National Medical Center
4)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5) Red Cross College on Nursing
6)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7)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8) Department of Nursing, Daejon University
9)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10)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Nursing
11)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2)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